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첩에 의한 회화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민 기

중첩에 의한 회화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민 기

인 준 서

강민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 속에서 개인은 타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관계는 소통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 무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은 나, 타인 그리고 사회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그 내면의 감정변화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관계의 소통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타인과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이를 토대로 느끼는 감정들을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STEEL PAINTING>이란 주제를 갖고, 회화를 조각한다는 중첩과 반복의 기법적 과정과 색의 표현의 의미를 통해 ‘나’ 혹은 타인과의 현 상황을 표현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동기와 그에 따른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배경과 <STEEL PAINTING>의 중첩과 반복의 표현방법과 색의 표현에 관한 연구방법과 제작기법, 제작 의도를 연구 분석하고 작품 분석에서는 각각의 연구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제작 의도와 기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본인의 연구 내용을 부연하고자 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개괄적인 정리 및 본인의 작품 진행 방향에 관한 연구 의지를 밝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배경	3
2. 작품의 표현방법	7
1) 스테인리스 스틸의 중첩과 반복 표현	7
2) <STEEL PAINTING> 유닛의 결합과 표현	9
3) <STEEL PAINTING> 색의 표현	11
3. 작품분석	14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작품 1> 소란스러운 마음	14
<작품 2> 마음 밖으로 나간 마음들	16
<작품 3> 마음의 오지	18
<작품 4> 외로움을 견디는 일과 타인을 견디는 일	20
<작품 5>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23
<작품 6> expansion thinking	25
<작품 7> flexible thinking	27
<작품 8> expansion thinking	29

I. 서론

시대와 관계없이 예술가는 그 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며 다양한 조건의 영향 하에 있게 된다.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와 경험적 관계가 자기 내부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상상력 혹은 감정을 동요시켜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으로 표출하게 된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이는 유일무이한 개인이 아닌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본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관계는 나라는 존재를 지지하고 내 삶의 건실한 모태가 되지만, 부정적인 관계는 때로는 삶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란 평생 이루어야 할 숙제이며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소통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관계와 그를 통한 내면의 변화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유닛으로 붓 터치로 표현하였으며 붓 터치가 겹겹이 쌓이는 과정들의 인간관계의 관계성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인간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변화를 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수많은 색들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 형상을 이루는 것을 통해 내면에 살아나는 감정 변화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나’를 바꾸는 원인이자 동기라는 생각을 전제로 내면에서의 변천이 작품 속에서 조형화되는 과정과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고, 현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것은 본인만이 느끼고 있지 않을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이를 토대로 느끼는 감정들을 현대적 재료를 이용

하여 ‘나’ 혹은 현대인들의 현 상황을 표현함과 동시에 작업의 기법적으로는 평면적, 입체적 활용을 통해 <STEEL PAINTING>이라는 조형적 표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계 속 나의 정체성이라는 소재를 택하게 된 배경 설명과 평면적인 붓 터치를 중첩에 의한 회화적 표현의 시도를 시작으로 하여,

둘째,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료적 특징과 중첩, 반복 표현방법, <STEEL PAINTING> 유닛의 결합으로의 작품 표현을 설명하고 색에 대한 표현연구를 서술하며,

셋째, 본인의 연구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과 요소를 확인하고 추후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본론

1. 작품형성배경

현대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나’라는 한 존재.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그 변화 속도가 완만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그 변화는 매우 빨라졌다.

산업혁명은 경제적 성장과 동반된 기계화 생산을 기반으로 오직 능률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합리, 표준, 집중을 중요시 여기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시켰다. 대량생산 및 소비 체제를 확립 후 완성된 대중사회는 결과적으로 이윤추구가 우선이 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사회로 변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임금에 종속적이 되고 단순한 노동력 가치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화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인간은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인간은 사회와의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특징 속에 나타나는 인간 개개인들의 부작용 또한 매우 다양하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현상이나 사건을 맞닿았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며 오감과는 구분된다. 감정은 단순한 인식 작용이나 충동 의지와는 다른 것이지만 개념적으로 정밀히 나눌 수는 없다. 이러한 감정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형성 배경 중 본인의 심리적인 원인과 사회적 원인 두 가지를 본문의 예로 제시하려 한다.

첫 번째, 심리적인 원인으로서는 감정은 요구수준과 관계로 생긴다. 즉, 어떠한 목적을 요구수준에 도달시키면 성공감이 생기지만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찾아온다. 행복감과 불행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감정이다.

두 번째, 사회적 원인은 타인과의 관계로 요구수준과 목적의 문체가 얽히게 되면 다양한 감정이 발생한다. 승리와 패배의 감정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우월감이 존재하고 사람끼리의 호불호, 애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살아감에 있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내면에 생기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숨기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회가 됐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현대인들은 외적인 감정 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감정 상태를 지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감정노동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감정 부조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정신의학에서는 “경계성 인간”이 있다. 경계성 인간이란 과도한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애정, 관심 결핍에서 비롯되어 경계성 심리 장애로 사회 속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후천적 심리 장애를 뜻한다.¹⁾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들 수 있다. 이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타인과의 경쟁, 과도한 업무 등으로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한 절망적인 상태로 감정 부조화에 고통 받는 현대인들의 현상을 지칭한다.²⁾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현 사회의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라는 자신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 1) 오카다 다카시, *나만 바라봐* (동양북스 2018) p.17

2) 2) 김 환표, *트렌드 지식 사전* (인물과 상사 2013) p.27

본인은 현 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 살아가며 인간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개인은 이렇듯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규범, 태도를 학습한다. 그 때문에 개인은 정해진 요구에 맞춰 예의를 갖추고 사회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을 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살아간다. 개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는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³⁾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혹은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은 삶의 핵심적인 결정에 중심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재료인 스테인리스는 현대 사회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재료로써 사람들이 느끼기에 차가운 느낌을 전달한다. 이는 현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차가운 감정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스테인리스에 색을 입힘에 따라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재료이다. 본래의 느껴지는 차가운 이미지에서 감정을 입히듯이 색을 입히면 이 재료는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재료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현대사회 속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변화들을 겹겹이 쌓여가는 서로 다른 색들의 유닛들로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형성 배경에서 유닛 하나의 의미는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물은 <STEEL PAINTING>이라는 유닛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작업을 하며 현 사회를 살아가며 느꼈던 감정들과 깨우침을 작품으로 재구성하며 구상적, 비구상적인 형태와 색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의 관계들

3) 3) 조성대,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박영사 2003) p.9

속에서 구성된 정체성과 존재의 본질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 고찰해 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반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2. 작품표현방법

(1) 스테인리스 스틸의 중첩과 반복 표현

스테인리스의 재료적 특성을 사용하여 단단하고 견고한 유닛들 하나하나의 조각들로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공간을 여백으로 활용한 입체적 드로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반복적 면의 중첩을 통해 다양한 표면을 형성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미라고 불리는 창의적인 공간의 활용방법과 중첩과 반복을 통한 입체표현에 주목하였다.

붓 터치 유닛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방향성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며, 변천해 가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걸맞은 요소이다.⁴⁾

중첩(overlapping)이란 사전적 의미으로는 “여러 층이 겹쳐져 있는 형태”를 뜻하며 회화적적인 관점에서는 콜라주, 파피에 콜레 그리고 아쌍 블라주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형태의 겹쳐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위에 겹쳐짐으로써 두 형태 간의 전후 관계가 생기게 된다.⁵⁾ 이와 같은 관계는 공간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첩은 공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첩에 의해 깊이, 즉 새로운 공간적 차원을 표현하려 할 수 있다.

중첩의 개념을 공간에 도입하는 것은 큐비즘(cubism) 이후로 큐비즘의 형태구성요소 중 면의 해체와 분절 또는 면의 전이의 따른 평면적 구성을 입체적인 구축으로 전환시켜 나간 데스틸(De stijl)과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이어진다. 따라서 큐비즘의 공간개념, 데스틸의 공간개념표현, 구성주의의 공간 조형을 관찰하면 공간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며, 그 발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큐비즘은 대상의 시각적 표현인 원근법과는 다르게 대상자체를 표

4) 하요 뒤히팅, Kandinsky, 김보라 역(마로니에북스) p28 인용

5) 아라꾸라 나오미, 평면 구성, 김학성, 조열(공역), (서울 조형사, 1999) p.183

현하는 <입체공간론>을 도입한다. 이 방법은 대상을 분해하고 시점을 바꾸어 여러 각도에서 대상을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조형 형식을 타파하고 추상예술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큐비즘에서 가장 돋보이는 방식은 콜라주였는데, 콜라주는 평균적 중첩의 방식으로 화면 속에 공간적 깊이감, 색채, 질감을 강조해 더욱 풍성한 조형성을 창조했고, 중첩의 개념은 제시하기 위한 지침이 되었다.

반복(repetition)은 색채, 질감, 크기, 형상 모두 동일한 단위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패턴의 연속이기도 하며, 운동적 회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단어 자체의 풀이처럼 여러 부분을 상호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형태 혹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뜻하며 반복적 요소로는 색, 형태, 방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반복되는 동일한 형식의 구성은 자연스러운 시선의 이동을 유발해 동적인 리듬감을 만들고, 힘의 강약효과를 시각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힘의 균일효과는 계속된 반복으로 인한 균형감 있는 표현에서 나타나며 이는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형성하게 된다. 반복에는 화면상의 유닛을 병렬시켜 형성되는 공간의 반복, 행위의 반복, 형태의 반복적 구성 등 화면의 유닛 형태 하나하나를 차례로 붙여나가는 행위의 시작과 끝의 개념인 시간성이 형성되며 패턴의 배치에서 생기는 공간의 확장효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규칙적 형태의 구성은 그 자체로 리듬과 질서를 가져, 동시에 양면성 있는 표현력을 지니게 되고 그 안에서 무한한 변화의 조화를 완성한다.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본인이 현대 사회와 인간관계 안에서
의 '나'라는 이야기로 작업을 풀어나가며 이 재료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에 부산물인 스테인리스
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의 차가운 감정을 가진 재료라 생각한다.

작품의 유닛을 만들 때 프라즈마라는 절단 공구를 이용하여 비 일률적,
반복적으로 판을 굽고 절단하여 마치 하나의 붓 터치를 해놓은 듯한 형태로
중첩하여 유닛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행위는 비 일률적이고, 반복적으로 스
테인리스판을 굽어 내려가면서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는 자아 회복적 행위뿐
만 아니라 잠재된 내면 안에서 감정을 결과물로 표현하는 본인의 표현수단
이다.

이 유닛은 하나의 붓 터치의 재현임과 동시에 유닛 안에 보이는 마티에르
적 표현의 스크래치는 인간관계를 가지며 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나무의 나
이테와 같은 경험의 시간적 흔적을 의미한다.

스테인리스 원형의 유닛을 겹겹이 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유닛 하나하
나의 색을 입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감정을 표현한다. 서로 중첩되어있는
유닛들이 서로 같은 색이 아닌 서로 다른 색으로 중첩되어 쌓이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맺어가는 과정에
서 생기는 어려움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함 등 다양한 변화를 느끼는 본인의
내적 감정변화를 표현하려 하였다.

(2)<STEEL PAINTING> 유닛의 결합

유닛의 중첩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금속성은 유닛의 독특한 밀도와 양감을
지니며 각각의 유닛들은 서로 인간관계와 인과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형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중첩을 통해 질량과 부피를 내보이고 재료로써 스테인

리스 모두가 독립적인 재료임과 동시에 입체라는 형상을 구성하는 종속적인 요소임을 표현함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하나 독자적인 개체인 스테인리스판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단일 면을 표현하며 동시에 각기 다른 색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드러낸다. 면들이 중첩, 반복되고 이 과정을 거친 개체들이 하나하나 다른 색들로 시각적 효과를 이루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인은 재료의 본디 성질을 초월하여 새로운 소통의 융합을 추구하였고, 우아하고 경외적인 표현을 멀리하고 서로 다른 면들의 집합 상태를 선택하여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집단과 개인 속에서의 인간, 더 나아가 본인이 살아왔던 시간과 형성과정을 예시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STEEL PAINTING>이라는 스테인리스판을 하나의 유닛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삶도 여러 감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복적으로 유닛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표현수단 중 하나이다. 동일하면서도 일면 다른, 그 속에 일정한 차이를 포함하고 있는 반복적인 양태를 띠는 일상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표상한 것이다.

수많은 유닛들의 연결은 관계성에 대한 필연적 표현이다.

독일의 미학자 에른스트 피셔(Ernst Fisher, 1899-1972)는 미적 관조(官租)에서는 관조자의 정신이 대상 속에 자신을 이입시켜 대상을 자기의 소유로 만듦으로써, 형식 속에 대상의 내적 본질 및 생명이 계시 되어 내용이 형식으로 되고, 표출도 충만한 형식과 형식화된 표출이 하나가 되는 것⁶⁾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감정 이입설과 밀접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표현이란 대상에 생명감을 베푸는 것이며 단순한 복사가 아닌 작가의 주관적 세계가 내포되어진 하나의 감정 표출인 것이다. 이처럼 생명력 있는 ‘나’라는 개인의 경험은 지속적 상상력을 갖고 변천해나가며 표현되어진다. 작품 속에 이야기

6) 미학, 예술학 사전, 안연길 등 역 (서울 : 미진사, 1993) p.89.

하는 관계 속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내면적 표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해왔던 작업들은 물감을 작품에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고, 쌓아 올리는 과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페인팅을 하며 작품의 밀도를 쌓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완성된 색,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색의 결합이 필요하고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형태가 수정되고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관계를 통해 본인이 변해가며, 그로 인해 ‘나’라는 인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닛이 수없이 반복되고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이 되면 이는 하나의 유닛이 아닌 무늬가 되고 질서가 되며 완성이 된다. 이처럼 쌓아 올리는 작업의 과정을 통해 나의 지난 과거를 상기하게 되고, 현재를 바라보며 ‘나’라는 사람을 고찰할 수 있는 여지의 시간을 갖는다.

작품에서 겹겹이 서로 다른 색의 유닛들이 쌓여 간다. 색채는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을 대변해주는 표현이다. 본 작품은 색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를 다양한 색감이나 두 차별된 색으로 대비하여 본인이 하나의 색(감정)이 아닌 여러 대비되는 내적 감정으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함을 표현하려 했다.

(3) <STEEL PAINTING> 색의 표현

우리는 수많은 색에 의해 둘러싸여 살고 있다. 회화 속의 우아한 색들을 볼 때마다 색과 상호작용을 한다.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던 우리는 색을 보며 오색과 상호작용을 한다. 물체의 형태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물체의 존재를 인지하기 위해 색채는 필수적이며,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수행 능력과 관계되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⁷⁾

7) Jacobs, G.H . The distribution and nature of colour vision among the mammals.

색은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에너지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시각 정보들 중에서 빛의 파장과 연관된 색은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피부색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감정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⁸⁾ 이렇게 주위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적응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색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인간은 외부의 물리적인 시각정보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쓸모가 있으며 의미 있는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다시 재구성하는 지각적 체계화 과정을 거친다.⁹⁾

E. Bmle Goldstein 은 지각 현상이 생물학적인 과정의 연속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지각은 기억, 사고와 같은 다양한 인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감각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지각은 심리적인 경험이므로 망막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지각 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⁰⁾ 이렇듯 색채 지각이란 외적인 생리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감각은 시각이며 그 정도는 70%에 이른다. 특히 색은 시각적 감각을 30%를 차지한다. 색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공간, 환경 및 사용 제품에 적용되어 영향을 끼친다. 색은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동시에 작용해 즐겁거나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색채는 생활이나 예술의 조형을 가리지 않고 그 사회의 양상을 여실히 반영한다. 인간의 감각 정보들 중에서 색 인상은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고 기억 속에서 긴 시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 속에 색은 작업과정의 중요요소

Biological review. pp. 413~471.

8) E. Bmle Goldstein. 감각과 지각, 제 4판, 시그마 프레스 p.134.

9) Henry Gleitman, 심리학, 제 4판, 시그마 프레스 p.288.

10) E. Bmle Goldstein (2000). 감각과 지각, 제4판, 시그마 프레스 p.83.

중 하나이다.

예술영역에서 색은 흥미롭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색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그들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색을 이용한다. 색채는 변화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맞추어 간단한 재현을 넘어서 인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색의 역할은 작품에 감정을 입히듯이 본인의 작품에 색을 입혀 작품의 성향과 내용적 측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색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는 시 공감적 감각 안에서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

색이 주는 메시지는 언어적, 조형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독특한 매력은 본질적 내용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그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처럼, 색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색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평소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나의 감정이 어떤지 살피고 그것을 색으로써 성실히 표현해보는 경험적 과정이 필요하다.

3. 작품 분석

<작품1> 소란스러운 마음



<작품1> 소란스러운 마음

<작품1> 소란스러운 마음

크기 : 3000 x 2000 x 20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2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프라즈마 절단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유닛들을 만들어 하나하나 아르곤 용접을 하고 용접된 유닛들을 샌딩한 후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하여 하나하나 붓으로 채색한 뒤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1>은 본인의 감정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유닛으로 붓 터치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으며, 붓 터치가 겹겹이 쌓이는 과정들은 인간관계의 관계성이라 표현하고, 인간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변화들을 유닛들의 색으로 표현하고 타인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떤 모습이나 인지도 잃어버리는 본인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던 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수많은 색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 형상을 이루는 것을 통해 내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마음 밖으로 나간 마음들



<작품 2> 마음 밖으로 나간 마음들

<작품 2> 마음 밖으로 나간 마음들

크기 : 1200 x 1200 x 9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2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프라즈마 절단을 이용하여 유닛을 만들어 하나하나 아르곤 용접을 하고 용접된 유닛들을 브러쉬 날을 이용하여 그라인딩 한 후 클리어로 광택이 나게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2>는 복잡한 관계는 때로 삶을 위태롭게 한다.

스트레스를 머금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과정을 겪다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은 아무 감정과 표정이 없는 차가운 내적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마음 밖으로 나간 마음들은 관계 속에 지쳐 결국은 나 자신이 타인에게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타인을 차갑게 대하면서 느낀 내적 감정을 작업으로 이어가 보았다. 차가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료 그대로의 표면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이미지와 본인의 마음속의 차가운 감정을 공통화시켜 표현하였다.

<작품 3> 마음의 오지



<작품 3> 마음의 오지

<작품 3> 마음의 오지

크기 : 1500 x 1150 x 6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3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프라즈마를 사용하여 절단 후 아르곤 용접으로 용접하여 붙여 작업하고 카페인트로 컬러링을 한 뒤,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3>은 사람들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많은 감정 소비로 혼란이 오며 그것이 반복되면 지치기 마련이다. 본인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 며칠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내면에도 그러한 공간이 있어 지친 나를 위로하는 마음의 오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마음속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돌아와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 있기를 바라며 작업을 하였다.

<작품 4> 외로움을 견디는 일과 타인을 견디는 일



<작품 4> 외로움을 견디는 일과 타인을 견디는 일

<작품 4> 외로움을 견디는 일과 타인을 견디는 일

크기 : 400 x 400 x 55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2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프라즈마로 절단하고, 또 다른 2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절곡하여 사각의 스테인리스 캔버스를 만들어 아르곤 용접으로 용접하여 붙인 뒤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하여 컬러링을 한 뒤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4>는 인간관계 속에 나를 이야기하는 작업을 이어가다 문득 들었던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존재한다. 또한, 그 어려움을 피하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기는 외로움 또한, 존재하게 된다. 외로움이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떠나가며 상처를 준 사람은 외로워지기 때문이다.

어려움과 외로움의 감정의 쟁점 안에서 나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의 작품에선 고요하고 적막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배경을 검정색으로 컬러링 하

였고, 타인을 건디는 일의 작품에는 어떤 색으로 물들어도 그 색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흰색으로 컬러링 하여 관계 속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드는 본인의 모습을 대비되는 색으로 컬러링 하였다. 그 안에서 지혜를 찾고 빛날 수 있는 희망적인 답을 내릴 수 있길 바라는 금색으로 컬러링을 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5>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작품 5>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작품 5>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크기 : 500 x 500 x 5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3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절곡하여 스테인리스 캔버스를 만들고 그 캔버스에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경계를 만들어 절단한 뒤 아르곤 용접으로 경계를 중심으로 유닛들을 붙이고 우레탄 페인트로 컬러링을 한 뒤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5>는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가끔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으며 겪는 갈등을 줄이기 위함으로써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사이에 생기는 벽은 또 다른 관계의 한계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감정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비되는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하지만 서로 잘 어울리는 색의 조합을 생각하며 컬러링을 하여 표현하였다.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다르지만, 서로의 경계 안에서 맞추어 가며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섞이면서 서로 더 좋은 감정, 관계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작품 6> expansion thinking



<작품 6> expansion thinking

<작품 6> expansion thinking

크기 : 200 x 300 x 20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1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프라즈마로 절단하여 나온 스테인리스판 유닛을 구부려 형상을 만들어 아르곤 용접으로 용접한 뒤 우레탄 페인트로 컬러링을 하고 클리어로 코팅을 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6>은 생각의 확장으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유닛 자체를 공간에 입체로 페인팅하듯이 표현하였다. <STEEL PAINTING>의 “회화를 조각하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적 표현을 연구하며 나온 실험작 이다.

즉흥적 감각으로 형상화하였고, 선의 평면적 특성을 입체적 해석을 통해 기존 작업에서 파생되어 다른 방법적 해석을 시도하고 싶었다. 청구전인 만큼 실험적인 작업을 하여 본인 작업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다.

<작품 7> flexible thinking



<작품 7> flexible thinking

<작품 7> flexible thinking

크기 : 500 x 400 x 5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4T 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스크래치를 주어서 붓 터치와 마티에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절단한 스테인리스판을 망치를 사용하여 단조를 치고, 구부려 원하는 형태로 만든 뒤 아르곤 용접을 사용하여 용접하고, 우레탄 페인트로 컬러링을 한 뒤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7>은 유닛을 만들어 평면의 유닛을 입체의 형태에 붙이는 주된 작업을 하던 중 유닛 자체를 입체적 붓 터치로 즉흥적 감각으로 형상화하였고, 선의 평면적 특성을 입체적 해석을 통해 기존 작업에서 파생되어 다른 방법적 해석을 시도하고 싶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전에 해왔던 작업에서 벗어나 <STEEL PAINTING>이라는 형식을 기존에 중첩과 반복적 표현, 다수의 유닛이 아닌 한 획으로 미니멀한 기법적, 시각적 표현으로 <STEEL PAINTING>을 표현해보았다.

<작품 8> expansion thinking



<작품 8 expansion thinking>

<작품 8> expansion thinking

크기 : 500 x 500 x 50 (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9

제작방법 :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면을 따라서 2차적으로 레이저 연마 과정을 거친 뒤 2T 두께의 레이저 컷팅 된 스테인리스판에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하여 컬러링을 하고 클리어로 코팅을 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8>은 생각의 확장으로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프라즈마 절단으로 붓 터치 유닛을 만드는 것이 아닌 붓으로 물감을 뿌리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 기존 <STEEL PAINTING>의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테인리스 재료로 평면적 표현을 시도하였고, 빈 공간을 두며 그 공간에 그림자를 투과시켜 작품 안과 밖에 그림자가 지면 평면적 표현이면서도 입체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평면과 입체의 모호한 경계에서 고민하던 본인의 모습을 기존과 다른 레이저 컷팅 표현기법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Ⅲ. 결론

현대적 기법을 이용해 제작한 재료를 통하여 본인 혹은 현대인들의 현 상황을 표현함과 동시에 조형미를 스테인리스의 특수성과 성질을 이용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미술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재를 채택하여 제작함으로써 평면과 입체 사이의 경계에서 나와 앞으로 작업의 방향성을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고 싶다. 이를 위해 본인은 얇고, 굵은 스테인리스판을 붓 터치된 하나의 유닛이라 칭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드로잉, 페인팅 하듯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중첩된 유닛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형성됨을 통해 여러 색과 형상이 가지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사물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닌 감수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를 이상화시키기도 한다. 혹은 작품 안에 사회, 문화적 문제 제기를 담아 현실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던지기도 한다. 또한, 수많은 새로움에 대한 언급 혹은 심지어는 새로운 질서까지도 작품에 부여한다.

결국 예술의 목적과 방법은 인간의 삶과 무관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을 떼어놓았다가는 그 의미가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은 궁극적으로 삶의 근본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며 방법적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다.

삶이란 완성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삶이라는 여행에서 본인은 반복되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과 그에 따른 내적 반성이 이곳에 멈추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며, 이것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작품의 감정과 조형성에 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 풍부한 표현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붓 터치와 같은 면들이 뻗뻗이 얽힌 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상은 각 면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수백, 수천 개의 면을 구성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관계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본인은 이 연구 작품을 통해 붓 터치들이 얽히고설킨 형태를 재현함으로써 관계 속에 부딪히며 변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오카다 다카시, 나만 바라봐 (동양북스 2018)

김 환표, 트렌드 지식 사전 (인물과 상사 2013)

조성대,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박영사, 2003)

미학, 예술학 사전, 안 연길 등 역 (서울 : 미진사, 1993)

하요 뒤히팅, Kandinsky, 김보라 역(마로니에북스, 2007)

아라꾸라 나오미, 평면 구성, 김학성, 조열(공역), (서울 조형사, 1999)

Jacobs, G.H , The distribution and nature of colour vision among the mammals. (Biological review)

E.Bmle Goldstein. 감각과 지각. 제 4판, (시그마 프레스)

Henry Gleitman, 심리학, 제 4판, (시그마 프레스)

ABSTRACT

Study on Concentration by Nesting

- ON THE BASIS OF MY WORK -

KANG, MINKI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individual who lives in the city of Daejeon is living with others and has a relationship with others. Relationships are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communication. As someone who lives in the city of Daejeon, I will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throwing a question about who is. The question is, John Jung, who eventually is a "m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others. It is understood that a person's identity is formed through connections with people. The purpose of his work is to express his identity and the emotional change that is formed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me.

«How does a person's identity, which is formed in the proverb of a human relationship, are shaped by a process of "I'm formed," and that John Jae, who is a "me," is formed through some process, and is harmoniously John John. Stein's feelings are based on the existence of John's current society Using Reese to express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Thine, with the theme of "STEEL PAINTING >, the nesting process of nesting the conversation, and the definition of an anti-dress process and color. I wanted to study.